

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598.26 (+239.31)		799.59 (+18.87)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669 (-0.071)		1425.90 (-6.60)

中 전기차 공습 시작… 韓 지분·생산기지 확보

상반기 전기차 신규등록 114% ↑
BYD, 1만1667대 판매 770% 급증
中 1위 ‘체리자동차’ 국내 진출 예고
지커, 누적예약 1500대 ‘홍행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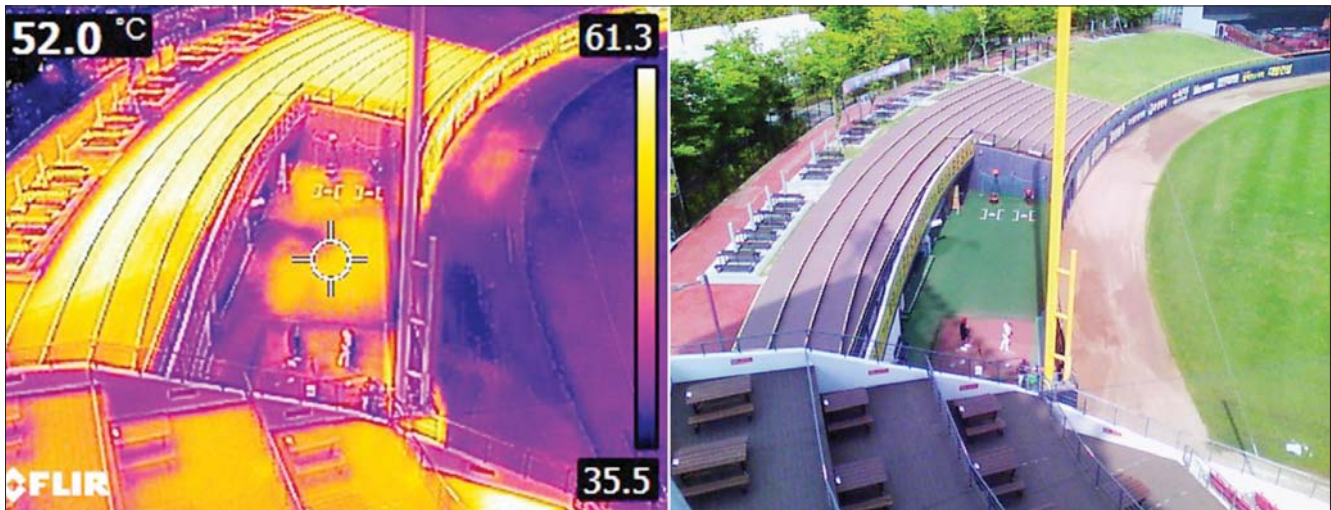
BMW를 비롯한 독일 완성차 업체가 독식했던 국내 수입차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전동화 모델을 앞세워 잠식해 나가고 있다.

BYD와 지커에 이어 중국 수출 1위 업체인 체리자동차까지 국내 진출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단순한 완성차 판매를 넘어 국내 업체와의 기술 협력, 지분 투자, 생산기지 확보까지 병행하는 전략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85만63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그 중 전기차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기차 시장은 19만650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3.6% 증가했다.

특히 미국 테슬라와 중국 BYD가 전기차 시장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BYD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BYD는 공격적인 신차 출시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1만1667대를 판매하며 전년보다 772.7% 늘었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중국 완성차 브랜드의 존재감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



‘폭염중대경보’ 프로야구 연일 취소

전남광주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면서 프로야구 경기가 연일 취소되고 있는 5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선수들의 피칭 연습장(왼쪽)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과 비교를 위한 원본 촬영 모습.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으로 표시된다. /뉴시스

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3대 중 1대는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집계됐으며, BYD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국내 공략방식도 업체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BYD에 이어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 지커는 판매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지리자동차와 체리자동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기반으로 생산 및 공급망 구축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재 지커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인증 절차 문제로 출고 일정이 미뤄지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커는 지난 6월 5일 중형

전기 SUV 7X의 사전예약을 시작했고 한 달 여만에 예약 대수 1000대를 돌파했다. 현재까지 누적 예약 대수는 1500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자동차는 르노코리아와 협력해 CMA 플랫폼을 공급하고 지분 투자에도 나섰으며, 부산공장을 활용해 계열사 차량을 생산·수출하는 등 한국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체리자동차 역시 KG모빌리티(KGM)에 7500만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투자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플랫폼을 공급하는 등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KGM과 공동 개발한 차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유

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체리자동차는 2003년부터 중국 자동차 기업 중 수출 1위 타이틀을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누적 수출 600만대를 넘기며 중국 자동차 기업 중 유일하게 내수보다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국내 전략이 단순 완성차 판매에서 기술 협력과 생산기지 확보까지 다변화되고 있다”며 “한국 시장 공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양성주 기자 ysw@metroseoul.co.kr

美증시 최고가 행진 코스피 3%대 급등

5일 코스피가 간밤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에 힘입어 4% 가까이 급등했다. 단 일종목 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강화 호재가 더해진 코스닥은 나흘째 상승해 장중 800선으로 올라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9.31포인트(3.76%) 오른 6598.26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한때 6674.66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수가 급격히 뛰어오르면서 오전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는 지난달 31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발동이다.

이날 증시 상승은 간밤 뉴욕증시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1.71%),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79%) 등이 상승하며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것이 재료로 작용했다.

코스피 239.31p 오른 6598.26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삼전 2%대, 하이닉스 5%대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주요 관료들이 조만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항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영향이다. 이에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증가는 배럴당 75.77달러로 전장 대비 5.7%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온기가 국내 시장으로 전해지자 외국인인 1조446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과 개인은 2835억원, 1조1835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50%, 5.77%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87포인트(2.42%) 오른 799.59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800선을 터치했다. 지난달 31일 정부의 단일종목 ETF 규제 강화 조치 시행 후 4거래일 동안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약 9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신도시 속도전·신규택지·비아파트… 후속대책 나오나

李 대통령, 내일 부동산 2차 회의
릴레이 토론회 거쳐 추가대책 윤곽
이달 중 공급확대 후속대책 나올 듯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시장의 모든 관심은 공급 대책으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달 중 후속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관계부처에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점하라고 주문한 데 이은 후속 회의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며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도심·비주택 용지·정비사업 활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급 패키지를 내놓았다. 올해 들어서는 후속 대책으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 6만 호, 용산·태릉CC·과천경마장 등 도심 공공부지 활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릴레이 토론회 등을 거치며 추가 대책의 윤곽은 어느 정도 잡혔다. 진행 중인 신도시의 속도는 대폭 끌어올리고, 단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신규 택지 개발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60개월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 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당초 발표했던 입주 시점은 이미 지났고, 토지 보상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미운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안하가에서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 단계에서 병목이 심각하고, 특히 착공 단계에서 막히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규 공급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군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이 거론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이나 국가가 보유한 각종 군시설까지 포함해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도 줄줄이 이어지면서 공급 대책은 빠르면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찬 회동을 갖고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집값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간 기준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77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은 올해 들어 지난해까지 6.29%나 뛰었고, 수도권 상승률도 4.02%에 달했다. 화성 동탄이 15.75%나 급등했고,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10.3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재명 “입시제도 손 대서 칭찬받은 예 없어…권장 안하는 입장”
▲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공정한 재정개혁 추진”
/사진 뉴시스

▲장동혁, 서범수 ‘돌려차기’ 발언에 “있을 수 없는 발언…깊이 사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공정위 고발사건 수사 체계 변화

▲태풍 ‘돌핀’ 8~10일 제주 영향…해경·소방 대응 총력
▲대구·경북, 7월 ‘열대야 8.1일’ 역대 최다…평균 최저기온도 1위